

2014년 거시경제 형세 분석 및 2015년 전망의 중국경제

2014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4년 거시경제 형세 분석 및 2015년 전망
2. 일 시 : 2014. 12. 18(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부 장샤오징(张晓晶) 주임

1. 2014년 거시경제 형세 분석

가. 거시경제 현황

□ GDP와 1, 2, 3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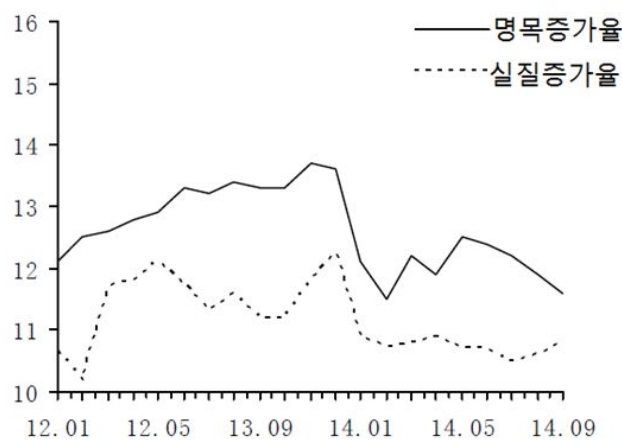
- 2014년 3분기 GDP성장률은 7.4%로 나타났으며, 그 중 1분기, 2분기, 3분기 성장률은 각각 7.4%, 7.5%, 7.3%임.
- 2014년 4분기 성장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인하 등 소폭적인 조정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별로 볼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성장률은 각각 4.2%, 7.4%, 7.9%임.

- 산업구조는 다소 최적화 되었으며, 특히 3차 산업 비중(46~47% 내외)이 2차 산업을 초과함.
 - 산업구조 최적화는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이며, 과거 2차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2차 산업의 발전 속도를 완화시킴.
 - 3차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여 영업세 개혁 등 3차 산업을 촉진시키는 부양책을 많이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3차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음.

□ 소비

- 10월 사회소비품 매출액은 동기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분기 대비 0.4%p 하락, 전년 동기대비 1.8%p 하락함.
- 소비의 실질증가율은 10.8%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안정적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0.4%p 하락함.
- 지난 몇 년간 소비는 안정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면서 11~12%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유지하였음.

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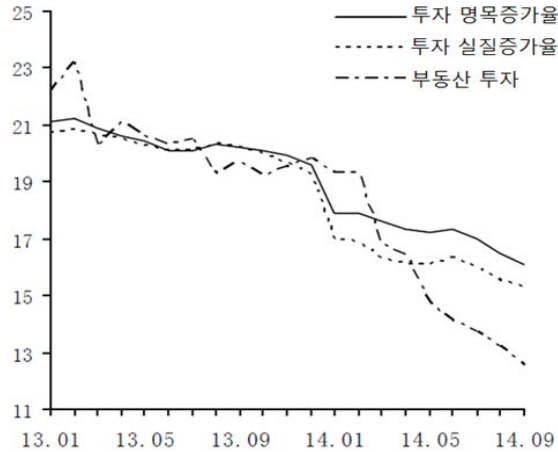


□ 투자

- 올해 1-10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농촌가구 제외)의 동기대비 명목증가율은 15.9%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1-9월에 비해 0.2%p, 2013년 증가율(19.6%)에 비해 하락함.
- 2000년대 이후 투자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평균 26~30%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투자의 증가율이 20% 미만으로 하락(과거 평균 26% 증가)하였음.
- 향후 투자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큼.

-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투자가 하락하면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투자보다는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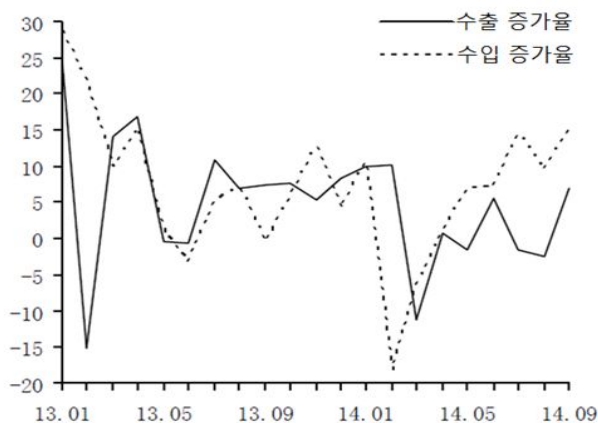
투자 증가율(%)



□ 수출입

- 1-11월 전국 수출입은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출은 2조 1천억 달러로 동기대비 5.7% 증가, 수입은 1조 7,800억 달러로 동기대비 0.8% 증가함.
- 수입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중국 국내 경기부진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변국가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설명함.
-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

수출입 증가율(%)



나. 중국의 뉴노멀 시대의 9대 특징(3대 수요, 3대 동력, 3대 도전)

□ 수요 변화

- 소비는 모방형·무분별형(模仿型排浪式) 소비에서 개성화, 다양화 소비가 점차 주류를 형성함.
- 전통산업(특히 섬유업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포화된 상태지만, 인프라 건설(互聯互通) 과 일부 신기술, 신제품(아이폰, 삼성 등), 신 경영방식, 신 비즈니스 모델(알리바바 등 온라인 쇼핑)의 투자 기회가 많이 나타남.
- 저비용 비교우위(토지, 노동비용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수출 경쟁우위는 여전히 존재함.
 - 과거 중국이 원산국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중국의 노동비용 등 생산원가가 상승하면서 “made in china” 대신 “made in vietnam”이 보편적임.
 - 과거의 경쟁우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우위(예컨대 혁신 등)를 찾아야 함.
- 높은 수준의 해외자본 유치와 대규모 “해외진출(走出去)”이 동시에 발생함.
 - 과거 해외자본을 규제 없이 적극 유치하였지만, 현재는 규모보다는 외자의 성격(친환경, 녹색, 첨단기술, 고용창출 여부 등 감안)을 고려하여 유치여부를 결정함.
 - 대규모의 “해외진출”은 대규모 수출(향후 여전히 수출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수출과 기업의 해외투자 등도 포함함.

□ 성장 동력 변화

- 신흥 산업, 서비스업, 영세기업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생산 소형화, 스마트화, 전문화가 산업조직의 새로운 특징으로 대두됨.
-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의 규모에 따른 견인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인적자본과 기술진보에 의존, 혁신이 성장 견인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함.
- 시장은 과거의 양적 확장과 가격경쟁 위주에서 점차 질적이고 차별화 위주 경쟁으로 전환됨.

□ 새로운 도전

- 자원 환경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음. 예컨대 베이징 등 도시의 스모그 현상이 이미 상당히 심각함.
- 높은 레버리지 비율과 버블 해소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각종 채무리스크가 향후 일정기간 지속 될 것임.
- 전면적인 경기부양책의 한계효과가 현저히 감소되어, 생산과잉을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시장의 메커니즘 역할을 통해 미래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전반적인 수급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거시조정을 실시해야 함.

□ 뉴노멀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조적 감속

-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는 고속성장을 겪은 후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미국, 일본, 한국 역시 유사한 과정을 겪었음.
- 과거 30여년은 효율이 낮은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효율이 높은 2차 산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회의 자원배치 효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2차 산업에서 노동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3차 산업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율이 하락함.
 - 산업구조의 최적화(3차 산업의 비중 향상)자원배치의 효율 하락과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함.
- 생산요소 공급의 효율이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남.
 -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공급은 충분하지만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저축감소로 인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후발국인 중국은 선진국에 대한 기술 모방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지만, 향후 자체혁신 능력으로 경제가 발달해야 하는 시기임.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력의 발전 속도도 완화된 것임.
- 현재 심각한 스모그 등 오염문제로 인해 공장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제성장에 일정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국가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예컨대 TPP) 하에서 중국 수출의 어려움이 증대됨.

다. 잠재리스크 1: 생산과잉

□ 생산과잉 문제는 상당히 심각

- 생산과잉에 따른 기업도산과 은행의 악성채무가 증가함.
 - 생산버블이 붕괴됨에 따라 2012년 이후 상업은행의 부실대출은 전체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함.
 - 14개 상장은행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6%이고, 개인부분을 제외한 (對公)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이지만 해당 두 업종의 부실대출액은 은행 전체 부실대출 잔액의 80~90% 차지함. 즉 해당 두 업종의 부실률은 대략 37.5~40%임.
 - 그중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민영기업임. 지역적으로 창장삼각주에 집중되어 있고, 창장삼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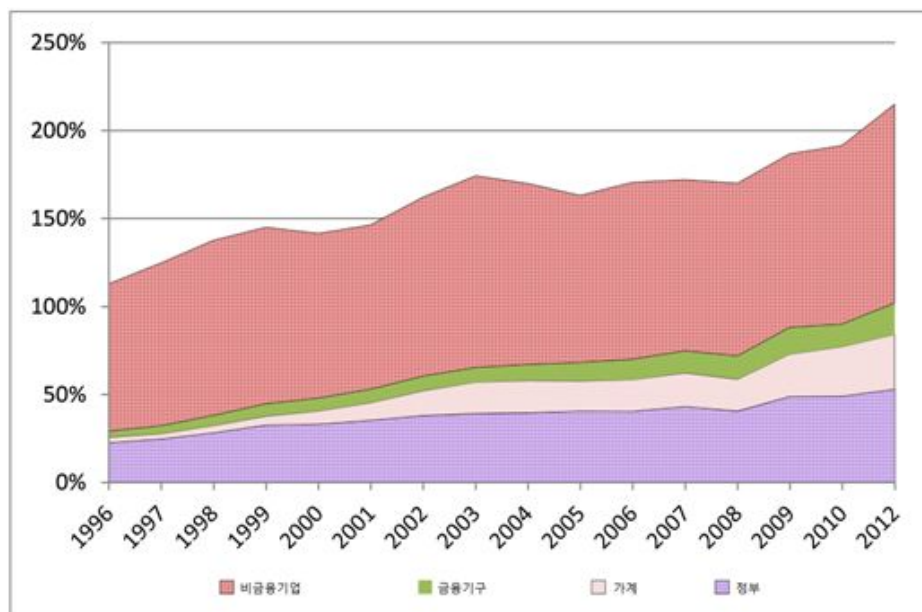
- 의 동부 연해지역에서 남북 내지 중부지역으로 점차 확장되는 추세를 보임.
- 지방정부 경쟁이 상당 부분의 생산과잉을 초래함. 예컨대 태양광산업의 경우, 민영기업 위주로 경영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많은 혜택을 부여함.

라. 잠재리스크 2: 레버리지 비율

□ 전체 채무수준과 전 사회의 레버리지 비율

- 지난 2, 3년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지방 정부 채무로 인해 중국경제 위기가 초래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컸음.
- MGI 연구에 따르면, 가계, 기업, 정부와 금융기구 4대 부문의 채무 합산 시, 1996~2012년 사이 전체 채무비율은 상승세를 유지(2003~2008년에 다소 하락하여 레버리지 해소과정이 나타났음) 하였음.
 - 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은 2012년 기준 53%에 달하였고 그 후 다소 상승하였지만, 대체적으로 50~60%의 수준을 유지함.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00년 IT 버블 붕괴 후,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생 후, 전 사회의 레버리지 비율은 빠르게 상승함.
- 위기 충격이 전체 채무증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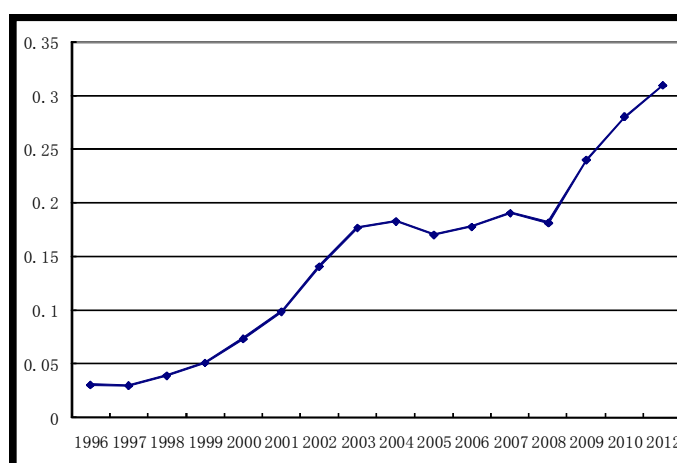
중국 각 부문별 채무의 GDP 대비 비중



□ 가계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 가계부문의 채무는 모두 대출임.
- 중앙은행이 작성한 금융기구의 본위회계와 외화 대출수지표(부문별)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가계부문의 미상환 대출 잔액은 16조 1천억 위안(그중 소비성 대출 10조 4천억 위안, 경영성 대출 5조 7천억 위안)으로 GDP 대비 비중이 31%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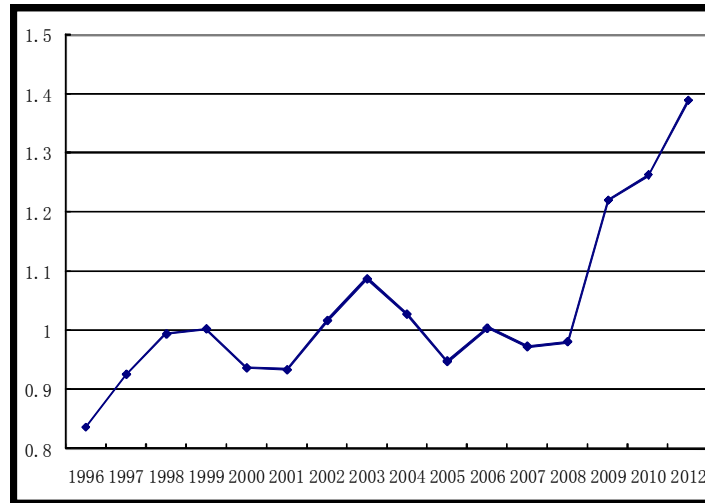
가계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변화 추이: 1996~2012



□ 비금융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 2012년 말 기준, 대출, 채권융자와 “그림자 금융” 세 부문을 총괄하여 얻은 비금융 기업부문의 채무 잔액은 72조 1,200억 위안으로 GDP 대비 비중이 139%에 달함.
- 비금융기업 부문의 채무는 상당이 지방정부 융자, 즉 정부 배경을 가진 실제 채무임.
- 중복될 경우를 고려하여 뒷부분에서 예측한 지방정부의 융자 채무규모를 공제할 경우, 기업부문의 채무 잔액은 58조 6,700억 위안임. GDP 대비 비중이 113%로 스페인을 제외한 기타 국가보다 높은 수준임.
- 2013년도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기업부문의 채무 잔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 내지 130%로 상승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업부문의 채무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큼.
- 중국은 레버리지를 해소해야 하며, 특히 기업부문의 레버리지를 해소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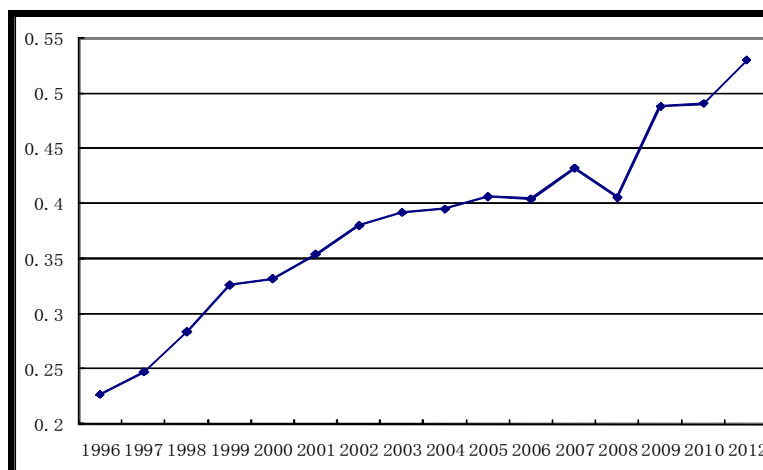
비금융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변화 추이: 1996~2012



□ 정부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 2012년 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합계는 27조 7천억 위안으로 GDP 대비 비중이 53%임.
- 주목해야 할 것은 2012년 말 지방정부 채무는 19조 9,400억 위안, 그중 지방정부의 융자 채무 잔액이 13조 4,500억 위안에 달함.
- 사회과학원 경제학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국정부의 순자산은 80조 위안 내외로 추측됨. 즉,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으로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

정부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변화 추이: 1996~2012



□ 채무수준의 국제비교

- 중국의 전체 채무수준은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지만, 기타 브릭스 국가(남아공 불 포함)보다 높은 편임. 하지만 국제적으로 적당한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단계에 있음.
- 최근 들어 중국의 채무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구조적으로 볼 때, 중국 비금융기업의 채무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비금융기업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GDP 대비 기업채무 비중)은 이미 113%에 달하여 OECD국가의 90%란 한계치를 초과하였음.

중국과 선진국 간 비교(GDP 대비 비중, %)

	가계 채무비중	비금융기업 채무비중	금융기구 채무비중	정부 채무비중	전체 채무비중
일본	67	99	120	226	512
영국	98	109	219	81	507
스페인	82	134	76	71	363
프랑스	48	111	97	90	346
이탈리아	45	82	76	111	314
한국	81	107	93	33	314
미국	87	72	40	80	279
독일	60	49	87	83	279
호주	105	59	91	21	276
캐나다	91	53	63	69	276
중국	31	113	18	53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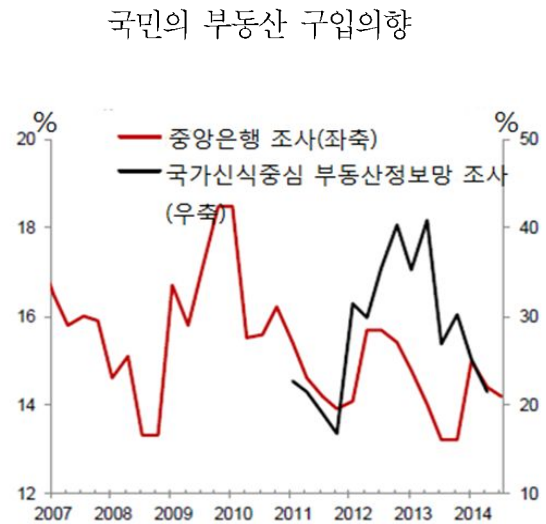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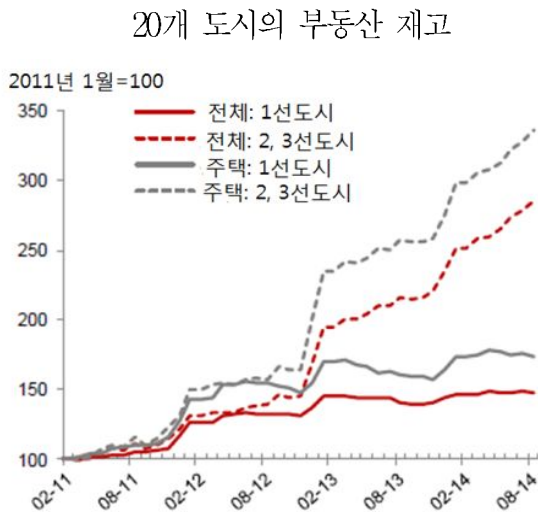
2011년 중국 정부 자산부채표 (단위: 조 위안)

자산		부채와 정부 순자산	
정부 저축(중앙은행)	2.3	중앙재정 국내부채	7.1
보유자산	21	정부 대외부채	2.9
국토자원 자산	52	비금융자플렛폼 회사의 지방정부 채무	6.11
행정사업 단위의 국유자산	8.8	지방정부 융자플렛폼 채무	11.42
비금융기업의 국유자산	70.3	비금융국유기업 부채 (지방정부 융자플렛폼채무 제외)	37.18
금융업의 국유자산	11.1	정책성은행의 금융부채	6.5
		은행의 부실자산	0.4
		은행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우발부채	4.2
전국 사회보장기금 국유자산	0.8	양로금 은폐부채	3.5
자산 합계	166.3	부채 합계	79.31
		정부 순자산	86.99

마. 잠재리스크 3: 부동산

□ 부동산 현황

- 1, 2선 도시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폭이 크지 않았지만, 3선, 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함.
- 도시화와 인구구조 변화, 정책전략 변화가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추세에 영향을 미침.
 - 도시화는 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과거 추진해왔던 도시화와는 달리 “도농통합(城鎮一體化)” 위주로 추진할 것인바, 농촌의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농민의 토지권리 확보를 강조하고 있음.
 -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향후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될 것임.



□ 부동산시장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할지라도 대다수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부동산대출 잔액보다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산”, 즉 저당물 압류 붐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
- 지난 5년간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2배 상승하였고, 중국의 부동산 대출 선불금은 계속하여 높은 수준(20~40%)을 유지하였음.
- 가계의 상환능력을 보면, 중국의 수입대비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비교적 높지만, 최근 들어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음.

- 가계부문의 레버리지 비율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2013년도는 30%에 불과)이고 부동산 구입자의 레버리지 비율은 더 제한적(2012년과 2013년 상품주택 매출액 대비 신규 부동산 대출액 비중은 20~30%)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황을 약화시킴.
-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할지라도 중국정부는 관련 부양책(예컨대 최근에 발표된 은행 이자율 인하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임.
- 중앙정부 경제업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시장에 의해 조정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시장 리스크는 정부의 통제범위 안에 있음을 설명함.

바. 리스크 대응법

□ 리스크에 적극 대응

- 리스크의 발생과 발전 동향을 주목해야 하며, 리스크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대응 정책은 분류하여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함.

2. 2015년 경제전망

가. 거시경제 전망

□ 경제 성장률: 7% 내외(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는 여전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부양책을 적극 실시함.
 - 중점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공동발전, 창장경제지역 3대 전략 추진
 - 내년은 “12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한해인바, 목표달성을 위해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가 실시될 것이고, “13차 5개년”계획을 작성,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3차 5개년”계획이 제시한 정책 방향, 사업방향 등은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수출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좋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경제 회복은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금리인상은 또한 국제자본의 이동을 초래할 것임. 이에 따라 중국자본이 해외로 대량 유출될 것인데, 이는 중국 국내경제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나. 2015년 정책 전망

□ 거시조정의 뉴노멀

- 확고한 신념 유지하면서, 향후 이러한 성장세의 지속가능 여부에 주목해야 함.
 - 미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원인은 바로 지난 100여 년간 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통화정책은 완화기조가 계속될 것임.
 -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적자가 증가할 것임.
 - 올해 금리인하 등 정책에 이어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계속하여 금리인하, 기준율인하 등 정책이 발표되면서 혁신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행정 독점 감소와 권리이양 등 정책이 점차 추진될 것임.
- 경제성장을 위해 지방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

<질의 · 응답>

질문 1.

12차 5개년 계획의 미달성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1.

12차 5개년 계획의 미달성 부분은 내년에 각 부서에서 평가할 것임. 지난 경험에 따르면 주로 자원, 환경 분야가 미달인 경우가 많음. 그 다음으로는 교육, R&D 관련 분야임. 내년에 이러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고 좋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환경오염 기준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관리를 강화할 것임.

질문 2

현재 러시아의 루블은 평가 절하되고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함. 이는 1997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함. 내년 중국 위안화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답변 2

기존 연구와 시장의 수급 현황에서 볼 때, 중국의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

됨. 실제로 올해 위안화는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하였는데 현 단계 위안화는 평가절하임. 국제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달러 강세에 의해 중국의 위안화는 상대적인 약세를 지속할 것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2~3%의 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가 의심됨. 투자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상 시간보다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미국 경제학자 역시 향후 미국은 장기적으로 경제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즉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3%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 반면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로 하락할지라도 미국의 2배 수준이므로 앞으로 위안화가 평가절상 될 가능성이 큼. 최근 국제포럼에서 중국에 대한 국제 투자은행, 국제기구의 전망을 볼 때 역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기대함.

최근 평가절하의 압력과 향후 평가절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급과 수요 변화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하 현상은 내년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질문 3

일대일로에 관하여 언급하셨던 중장기적인 생산설비 과잉문제, 부채문제, 투자면의 리스크 등에 대해 동의하고 리커창 총리도 회의 시 일대일로에 대해 많이 강조하셨는데,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상환능력이 취약함. 베네수엘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부채는 500억에 달함. 이런 국가가 일대일로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관련 투자는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나 위험요소가 있는가?

답변 3

“일로일대”에서 지금의 “일대일로”로 정책 명칭을 변경함. 아마도 이유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일대” 부분이 해상실크로드 “일로”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크고 해상실크로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일대일로”의 추진과정에서 참여국가, 그리고 참여국 사이의 인프라 건설(互聯互通)을 위하여 건설 분야에 대량으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임. 이것도 중국자본의 해외진출 방식 중의 하나임. 이런 투자는 분명 리스크와 손실이 존재함.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 하더라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통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함. 이미 실크로드 펀드를 설립하였고 또 앞으로 AIB도 설립할 것임.

질문 4

현재 중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기업들은 경영상황이 어려워 수입으로 이자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임.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주식은 현재 3000까지 급등함. 내년 중국의 주식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답변 4

예전에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중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농담이 있음. 왜냐하면 현재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자금은 당연히 주식에 투자됨. 사실 중국의 경제 펀드멘탈과 주식시장은 크게 연관되지 않음. 주식시장에 어떤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개념과 관련된 산업이 나타나는 동시에 대량의 기업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주식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도 늘어나게 됨.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평가된 홍보 효과일 수도 있음. 예를 들면 창장삼각주 경제지역, 징진지(京津冀)공동발전, 일대일로 등은 과대평가된 홍보라고 할 수 있음.